북부-작업.ps 2015.7.28 11:32 AM 페이지1 Mac-03

큰오색딱다구리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 흔하지 않은 텃새입니다. 몸길이는 25~28㎝ 정도인 중형이고, 특징으로 가슴과 배에 얼룩무늬가 있으며 날개에는 흰색 가로띠가 있고 수컷은 부리 위 이마와 머리꼭대기에 붉은 깃털이 있으며 암컷은 수컷과 달리 검은색입니다.
암수 모두 아랫꼬리덮깃은 분홍색입니다.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다양한
야생화와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괴석
어우러진 울창한 숲에서 서식하는 포유류
야생조류 어류 등의 동식물 생태계를
관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이 좋아 같이 사는 친구들"

참갈겨니

우리나라 고유종이며 1급수를 대표하는 어종입니다. 뱀사골 계곡에는 다양한 수서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참갈겨니는 수서곤충 등을 먹고 살며, 눈이 크고 몸 옆에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제비나비

우리나라에 사는 제비나비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깊은 산과 계곡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나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날개와 뒷날개에 황록색의 미무늬가 선명합니다.

육색긴꼬리산누에나방

육색긴꼬리산누에나방은 긴 이름만큼 고운 색과 우아함을 지닌나비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나방류 중 크기가 큰 편이며, 곱고 고운 육색 빛을 띕니다.
육색 빛 날개로 숲 속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염없이 따라가고만 싶어집니다. 앞날개는 끝이 뾰족하고 뒷날개에는 눈알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노각나무

한국의 고유식물로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낙엽교목입니다.
숲에 있는 나무들의 껍질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적갈색의 얼룩무늬 껍질을 가지고 있어 눈에 띄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얼룩무늬 껍질이 사슴뿔을 닮아 녹각나무라 부른다가 노각나무로 변해게 되었습니다.

산국

꽃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가장자리에는 큰 꽃이 있고 안쪽에는 작은 꽃들이 모여 피어 있습니다. 크게 피어있는 꽃은 가운데의 작게 피어있는 진짜 꽃이 수정할 수 있도록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꽃이랍니다. 꽃들의 살아가는 전략이 놀랍습니다.

히어리

멸종위기식물 II급이며 한국특산식물이다. 어느 환경든 지역에서만 자라는 고유식물을 특산식물이라고 하는데 히어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살아가는 특산식물로 이른 봄에 여러 개의 노란색 꽃이 조롱조롱 늘어져 피어납니다. 반달가슴곰과 함께 지리산의 것대동이랍니다.

삵

우리나라의 고양이과 동물가운데 가장 몸집이 작으며, 고양이보다 덩치가 약간 작거나 비슷합니다.
고양이와 모양이 비슷한데 얼굴 앞쪽의 세로 줄무늬 등으로 구분합니다. 살쾡이' 라고 들어보셨죠? 삵을 살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지리산에는

- 반달가슴곰, 하늘다람쥐 같은 포유류 41종,
- 올빼미 등조류 109종
- 개구리, 맹꽁이 등양서류 11종
- 도마뱀 등파충류 10종
- 버들치, 쉬리 등어류 10종
- 오색나비, 측범하늘소 같은 곤충 4,478종
- 산수국, 지리터리풀, 노루귀, 꿩의다리 등 식물 1,074종
- 거미류, 지의류 등기타 961종

총 6,703종에 달하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산

지혜의 산 지리산, 생명과 평화를 품다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롭게 된다는 지혜의 산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늑한 산세는 수많은 생명을 낳아 왔고 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리산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풍경으로는 천왕봉 일출, 연하선경, 벽소영월, 반야낙조, 피아골단풍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지리10경이라 부릅니다. 또한 지리산에는 화엄사, 쌍계사와 같은 천년된 사찰들과 많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생태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탐방안내소



지리산뱀사골탐방안내소는 아름다운 뱀사골을 찾아온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총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국립공원과 지리산의 생태·문화를, 2층은 1950년대 지리산에서 전개되었던 빨치산과 토벌대를 주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품은 자연문화유산들

실상사 (약 10km /약 15분 소요)



통일신라 흥덕왕 3년(828년) 홍척국사가 창건한 최초의 선종 사찰입니다. 산중이 아닌 넓은 들판 한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남원 광한루원 (약 36km /약 45분 소요)



명승 제3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내에는 보물 제281호로 지정된 광한루가 있습니다. 판소리춘향가'의 배경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정령치 (약 14km /약 20분 소요)



' 정' 씨 성을 가진 장군이 지킨 고개라 하여 정령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령치는 해발 1172m로 천왕봉을 비롯한 남원 시내, 운봉 고원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화엄사 (약 30km /약 45분 소요)



지리산 8대 사찰 중 가장 큰 사찰로 동양 최대의 목조 건물인 각황전을 비롯해 국보 4점과 보물 5점 전연기념물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고단 (약 14km /약 3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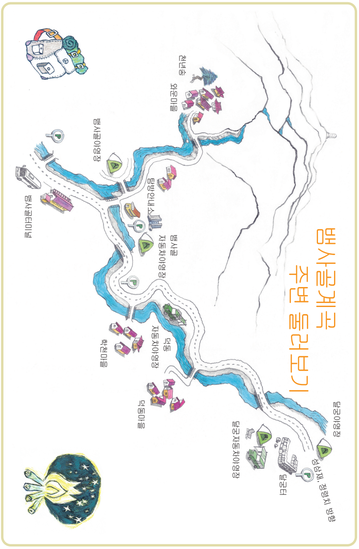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을 대표하는 봉우리 중 하나입니다. 지리산 종주의 시작점이며 성삼재 휴게소에서 노고단 정상부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도재 (약 21km /약 30분 소요)



마천면과 함양읍을 연결하는 고개로 과거 내륙과 남해안사람들이 물물교환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고개입니다. 이 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길이기도 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JIRISAN NATIONAL PARK NORTHERN OFFICE
(55905)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산로 10
Tel.063)630-8900 Fax.063)630-8902
web.www.knps.or.kr

탐방로 안내 및 산행 정보
산림청 1588-7119 / 119
산림청 국립공원 안내 홈페이지 www.knps.or.kr
청정지리산 산림청

Nature, Our Future!
- 자연, 우리의 미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곳

지리산 뱀사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JIRISAN NATIONAL PARK NORTHERN OFFICE
www.knps.or.kr

함박꽃나무

한국 원산인 목련과 낙엽성교목으로' 산목련', ' 개목련', ' 함박꽃', ' 함박이꽃', ' 함박이', ' 옥玉', ' 천년목련', ' 천년화' 라고도 부릅니다.
초여름 산골짜기마다 하얗게 꽃을 피우는데 우연히 고개들어 마주친 함박꽃 나무는 함박웃음이 나올 만큼 아름답습니다. 향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산에 피는 목련이라 하여'산목련' 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뒤어난 수영실력을 자랑하며, 물속에서 5분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답니다. 하천생태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로서 물고기, 개구리, 가재 등을 먹고 삽니다.
발자국에서는 물갈퀴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까마귀

물기에 사는 까마귀도 있습니다. 몸 전체가 흑갈색이고 다리는 은회색인데, 어린 새는 몸에 흰색의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 찍, 찍' 울며' 찌찌이, 쪼이, 쪼이' 하고 지자귀는데 계류의 물가나 흐르는 물 속에 장수하여 먹이를 찾고, 바위 위에 앉아 있을 때는 꼬리를 세우고 몸을 위 아래로 흔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노루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 식물의 잎들은 아직 추운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잎에 털이 나 있습니다.
노루의 귀처럼 솜털 많은 어린 잎에 털이 나 있는 모습이 노루의 귀와 닮았다 하여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었고, 꽃은 또 얼마나 귀엽고 앙증맞은지 겨우내 얼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꼬리치레도롱뇽

청정계곡에만 서식하는 1급수 지표동입니다.
꼬리치레도롱뇽의 발톱을 본적이 있나요? 꼬리치레도롱뇽은 발톱에 검은 매니큐어를 바른 멋쟁이 친구입니다.
가장 닮은 물에 사는 양서류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한 환경지표동물이기도 합니다. 다른 도롱뇽에 비해 꼬리가 몸통보다 1.2배정도 깁답니다.

북부-작업.ps 2015.7.28 11:33 AM 페이지2 Mac-03

www.jiri.knps.or.kr

용이 못된 이무기가 죽은 골짜기 '뱀사골계곡'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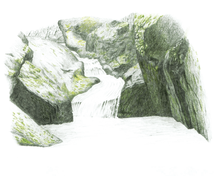
뱀사골은 지리산 반야봉과 토끼봉에서 반선마을까지 길게 뻗어 내린 골짜기입니다.
9.2km에 달하는 계곡 곳곳에는 기암괴석과 소(沼)가 자리하고 있으며,
각 소(沼)마다 재미있는 이야기 또한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양한 전설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명수(名水)로 꼽힐 만큼 맑고 투명한 뱀사골 계곡은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을철에 뱀사골을 찾으면 붉불는 단풍과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⓫ **간장소** 옛날 보부상들이 화개재에서 물물교환 했던 소금을 짊어지고 오다가 소금 장이 이 소(沼)에 빠져 간장소라 하며, 반야봉 등지에서 흐르는 물의 차가움이 간장까지 서늘하다 하여 간장소라고도 합니다.



⓬ **병소** 이 소(沼)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했던 호리병 모양 같다 하여 병소라고 불립니다.



⓭ **병소** 깊은 수심과 양면이 기암절벽으로 된 푸른 소는 병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곳을 용소라 불렀으나 송림사의 전설에 나오는 이무기가 이곳에서 죽었다하여 뱀소라 불립니다.



⓮ **탁용소** 용이 목욕하고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가을이 되면 계곡물이 단풍으로 물들여져 절경을 자아냅니다.



❶ **석실** 큰 바위가 겹쳐지면서 작은 굴이 만들어져 석실이라 불립니다. 1950년대 지리산에는 많은 빨치산들이 숨어 들었습니다. 이들은 소식전달과 사상교육을 위해 신문과 기관지를 출판·인쇄를 하였는데 석실은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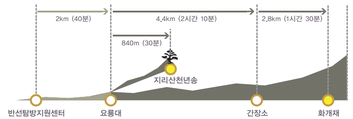
❶ **지리산뱀사골탐방안내소** 아름다운 뱀사골을 찾아온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❷ **뱀사골야영장** 맑고 시원하게 흐르는 뱀사골계곡을 끼고 있어 야영객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야영장은 인터넷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음수대가 있습니다. 자연관찰로, 뱀사골탐방안내소와 가까워 이용객들은 탐방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⓬ **화개재** 옛날 남원, 구례, 화동의 물물교환(장터) 했던 지정으로 많은 이들의 이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지리산 종주능선의 초입부분으로 많은 사랑이 머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뱀사골계곡 탐방코스 (9.2km) (4시간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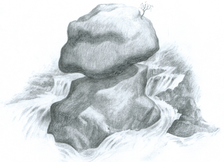
자연과 시간이 시작되는 곳 – 지리산국립공원
Where the nature and time originate - Jirisan nation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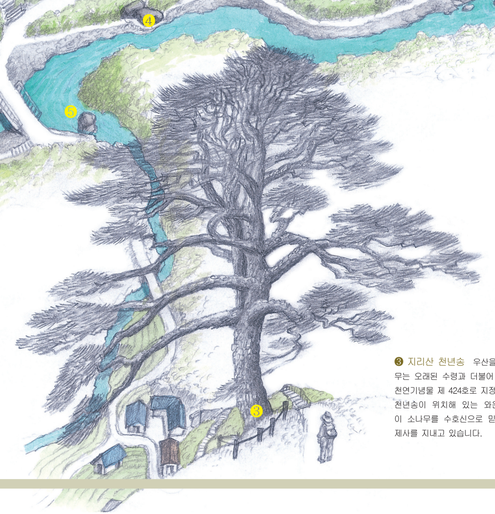
⓾ **제승대** 1,300여년전 송림사 고승(高僧)인 정진스님이 불자(佛子)의 애환(哀歡)과 시름을 대신하여 재(齋)를 올렸던 장소로 소원(所願)의 영험(靈驗)이 오늘까지 이어져 제승대라 불립니다.
주변의 기암, 고석, 청류는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탄성과 발길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⓫ **병풍소** 높이 10여 미터의 기암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와 어우러져 있는 깊이 10여 미터의 이 소(沼)는 마치 병풍처럼 바위들이 둘러싸고 있어 병풍소라 불립니다.



⓬ **요룡대** 와운골와 뱀사골이 합수되는 곳에 위치한 이 바위는 용이 머리를 흔들며 승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요룡대라 불립니다.



❸ **지리산 천년송** 우산을 펼쳐 놓은 듯 한 이 나무는 오래된 수령과 더불어 민속적 가치가 매우 커 천연기념물 제 42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습니다.
천년송이 위치해 있는 와운(臥雲)마을의 주민들은 이 소나무를 수호신으로 믿고 매년 정월 초사흘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뱀사골

유래(이무기가 죽은 골짜기 뱀사골)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 뱀사골 입구에 송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송림사에서는 매년 칠월 백중날(음력 7월 15일)에 스님 한 명을 뽑아 그날 밤 신선바위에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면 매번 스님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그 스님이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이 이야기를 기이하게 생각하여 그 해에 뽑힌 스님 옷자락에 독을 묻혀 놓았습니다. 날이 밝은 뒤 사람들은 신선바위로 향하였는데 바위에는 이무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라진 스님들은 이무기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계곡의 이름은 이무기 즉, 뱀이 죽은 골짜기라는 뜻의 뱀사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이무기의 재물이 되었던 스님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계곡 입구 마을을 절반의 신선이라는 뜻인 반선이라고 불렀습니다.